

조선시대 제주의 주변성과 의료*

김호**

〈차 례〉

1. 머리말
2. 제주의 약재와 藥局
3. 지방관의 의료 활동
4. 제주의 주변성과 '사회적 자본'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 필자는 제주의 주변성-중앙에서 먼 섬이라는 자연환경과 성리학의 늦은 확산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사족 형성이 지체되었을 뿐 아니라 질병 치료를 무당에 의지했던 문화적 특징들로 인해, 사족의 자발주의에 기초했던 의국의 지속적 운용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선초부터 중앙정부는 제주에 審藥을 파견하여 진상 약재를 관리했을 뿐 아니라 의학교수를 두어 의생을 양성했다. 15세기에는 제주목 관아에 약국을 설치했고, 이는 16세기 중엽까지 유지되었다. 17세기말 제주목사 윤계는 대정현과 정의현의 지방관들과 협력하여 의국 운영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의국[回春局]을 개설했다. 약국이 주로 중앙에 진상하는 약재 창구였다면, 의국은 제주민을 위해 약재를 무역하고 약물을 제조·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18세기 초까지 운영되던 의국은 18세기 중엽 이후 폐지되었는데 자발적 참여가 아닌 職役으로 운영되자 사족들이 점차 손을 뗀 것으로 보인다. 19세기초 제주의 신임목사들은 의국의 재건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요컨대, 제주 의국은 17세기말에서 18세기 초반에 활발하게 운영되었는데, 윤계나 이형상과 같은 열성적인 지방관과 유의 진국태의 협조가 어우러질 때 가능했다. 특히 이형상은 무당을 철저히 배격한 후 사

* 이 논문은 201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기초 및 중점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19-C08).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족 자체들을 의생으로 길러 의국 운영을 맡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형상이 제주를 떠나자 바로 신당과 무당의 굿판이 재개되었다. 성리학의 더딘 확산과 사족 형성의 지체로 인한 사회 자본의 결여는 사족 자발주의를 토대로 한 제주 의국의 지속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요소였다.

[주제어] 제주, 의국, 주변성, 사족, 사회적 자본, 이형상, 진국태

1. 머리말

그동안 제주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과묵한 탓이었지만, 필자는 조선시대 제주의 의료사 혹은 의료 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역사 연구를 접하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 한국의학사 연구의 선구자였던 미키 사카에(三木榮) 역시 제주의 의료 환경과 관련해서는 매우 소략한 소개에 그쳤을 뿐이다.¹⁾

사실 제주의 의료와 의료풍속에 대해서는 역사학보다는 제주의 무속을 탐구하는 민속학 등 인접 학문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졌다.²⁾ 반갑게도 최근 제주의 한 신문지상에 제주의 의료민속에 대한 특집 기사가 연속으로 게재된 바 있다. 해당 필자가 오랫동안 제주 향토사 연구에 매진했던 터라 희귀한 관련 자료들이 발굴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본격적인 의학사 논고라 하기는 어렵다.³⁾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선시대 제주의 의료사 연구에 관한 학술 논문은 필자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주변부로서의 제주에 초점을 맞추어 제주 의료 환경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주 의국의

1)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自家出版, 1966 참조.

2) 진성기, 『南國의 傳說』, 일지사, 1968; 현용준, 『濟州島神話』, 瑞文堂, 1972; 현용준, 『제주도 巫俗과 그 주변』, 민속원, 2002; 진태준, 『제주의 민간요법』, 醫苑社, 1977; 진태준, 『건강과 민간요법 : 제주도 민간의학』, 한국고시연구원, 1980;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7; 조성윤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등 참조.

3) 『제주일보』에 고려시대사 전공자인 김일우 박사의 『제주한의약, 그 역사 속으로』라는 특집 기사가 30여 차례 연재되었다(2017.5.31.~2019.16). 본격적인 역사 논문은 아니지만 역사학자가 집필한 가장 자세하고 방대한 제주의학사 및 풍속사라 할만하다.

설립이나 운영이 사족들보다 주로 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배경을 밝혀보고자 했다.

이른바 ‘주변’이란 ‘중심’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개념이지만, 중심과 주변 혹은 주변성이라는 개념을 깊이 논구하기보다, 일단 제주가 지리적으로 본토와 격리되어 왕래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 특히 한반도의 남단에 위치하여 특별한 자연환경과 식생을 갖춘 섬이었다는 특징을 고려하고자 했다. 알려진 대로 고려 말 이래 조선시대 내내 제주는 말이나 제주의 감귤류 등 지역의 특산물을 공급하는 장소로 여겨지거나 가장 먼 유배처로 취급되고 있었다.

제주의 주변성과 관련하여 필자가 가장 주목하는 요소는 조선의 성리학 통치와 관련한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특수한 지위이다. 조선은 중앙에서 각 지역에 관료를 파견하여 지방사회를 통제하였는바,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였던 이들은 제주 풍속을 유교의 가르침에 맞추어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제주의 지방관들은 향교와 서원 등 교육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반면, 이에 반하는 제주의 무속이나 신당을 음사로 규정하고 불태웠다. 이처럼 조선의 지배 이념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제주의 문화적 속성이 변화를 겪고 부침하기도 했지만, 중앙과 지방(혹은 주변)의 불가피한 길항은 오늘날 제주문화의 기본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⁴⁾

본론에서 논의하겠지만 성리학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爲己之學의 군자들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를 모색했다.⁵⁾ 사익을 넘어서 공공선[공익]의 지향이야말로 성리학 통치의 최종 목적이었는데, 이는 무엇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士의 자발성’이 사회의 기초를 이룰 때 가능한 일이었다. 성리학자들은

4) 일부이기는 하지만 연구자들 가운데 제주의 고유성이나 문화적 원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18세기 신당을 제거한 제주목사 이형상이야말로 고유한 제주 문화를 파괴한 폭력적 통치였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제주문화의 원형만을 부조적으로 강조하는 서술이야말로 제주의 역사성을 도외시킨 태도일 뿐 아니라 조선 성리학의 통치론을 고려하지 않는 접근법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한 지역의 고유문화는 새로운 사유를 펼치기 위한 자원이자, 특별한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프랑수아 줄리안·이근세 역, 『문화적 정체성은 없다』, 교유서가, 2020).

5) 김학수, 『제주지역 유교 지식·문화의 수용 양상과 ‘제주학풍’-주자학적 예교론과 사림과 학풍의 유입을 중심으로』, 『한국학』 43-3, 2020.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타적 덕성[天理]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각각의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통치되는, ‘강제없는 자발성[無爲而治]’을 추구했다.

조선정부가 관료를 파견하여 지방을 다스린 일은 단순히 왕의 권력을 대리하여 지방을 통제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조선의 지방관들은 근본적으로 향촌의 士·民들이 공동체의 공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했다.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자발성이 확대되면 될수록 지방에 대한 중앙의 개입이나 통제는 축소되었다. 반대로 지방의 자발주의 동력이 떨어지면 중앙의 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⁶⁾

아쉽게도 조선시대 제주는 여타 다른 지방의 향촌사회와 달리 사족의 자발성이 크게 발휘하기 어려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주를 ‘주변화’한 조선정부의 통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동시에 스스로를 ‘주변화’하려는 제주의 정체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조선시대 제주를 잠시 방문했던 목사나 유배객의 관찰이 제주의 역사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깊이 있게 파악했는지 장담할 수 없지만, 제주에 부임했던 상당수의 관리들이 묘사한 바, 제주사람들은 중앙의 관료로 나가기보다 제주의 서리를 바랐고, 선비가 되기보다 鎭撫와 같은 武弁의 길을 택했다.

조선시대에 제주의 사족 품관들 가운데 성리학에 혼숙되어 해당 지역의 안녕을 위하여 鄕所에서 향약을 시행하거나, 醫局에서 지역민을 위한 의료 활동에 종사했던 자발주의의 흔적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제주목사를 설득하여 학교를 세운 유학자 김진용이나 제주 인민을 위해 의술을 배운 명의 진국대의 경우처럼 제주 사족들의 활동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성리학의 더딘 확산은 역사적으로 몇 가지 문제들을 야기했던 것으로

6) 필자는 조선시대 성리학 통치를 중앙집권적 이데올로기나 신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지배 이념의 측면에서만 접근해 온 일본의 성리학 통치론대표적으로 守本順一郎(김수길 역), 『동양정치사상사 연구: 주자 사상의 사회 경제적 분석』, 동녘, 1985]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최근 宋代 신유학과 士의 자발주의가 당대 중국의 향촌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탐구한 역사학자 피터 볼의 연구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Peter Bol·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참조). 최근 북미의 중국 향촌사회사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이석희, 『최근 30년 북미 중국학계의 향촌사회사 연구동향』 『역사와 현실』97, 2015를 참고할 수 있다.

보인다.

가령 사족의 부재는 향약의 시행을 어렵게 했고, 이는 향촌 사회의 자율보다 국가의 통제에 무게 중심을 둔 ‘警民長’이라는 제주의 독특한 향촌 규율 시스템을 만들었다. 나아가 지방 사족들이 주로 담당했던 좌수·별감 등 향소의 향임이나 의국의 儒醫 역할의 부재는 제주 의국이 지속될 수 없는 운영상의 난제로 작용했다. 이를 제주의 주변화로 인한 의료 환경의 특성으로 파악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이 글에서 필자는 ‘부단히 주변화 되었던 제주의 문화 혹은 역사적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제주 의국의 운영 양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무당을 중심으로 한 민간 의료 풍속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2. 제주의 약재와 藥局

1) 약재 진상과 재분배

고려 이래 탐라[제주]는 토산[方物]을 포함한 진귀한 약재의 공급처였다. 『고려사』에는 925년 11월 탐라에서 공물을 받쳤다는 기록을 필두로 수많은 공물과 토산품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는 탐라를 송이나 흑수말갈 등과 같은 외국으로 간주했다. 1019년 9월 9일 중앙절을 맞아 현종은 송과 탐라 그리고 흑수 등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1034년 11월에는 팔관회를 개최하고 송의 상인 뿐 아니라 토산물을 바친 탐라인들에게 의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하사한 후 이후 상례로 삼았다.⁷⁾ 아울러 고려의 왕실은 탐라의 추장들에게 관직을 하사하기도 했다.

한편 1052년 3월에는 탐라국에서 해마다 바치는 굴을 100包子로 정하고 향식으로 삼았다. 굴 이외에 다양한 약재도 진상되었다. 1053년 2월 탐라국

7) 『고려사』 권6 세가 『肅宗 즉위년 11월』

의 왕지는 우황과 우피 그리고 榧子와 거북껍질[龜甲] 등 육지와 바다의 진귀한 공물을 바치고 중호장군에 제수되었다. 이에 고려 왕실은 관복과 다수의 약재를 하사했다. 1104년(숙종10) 탐라를 고려의 직할로 다스린 후에도 공물 및 약재의 재분배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었다.⁸⁾

고려시대 이후 조선에 이르기까지 제주는 지역의 특산물과 약재를 중앙의 조정에 공급하고 다양한 약물을 나누어 받는 <자원의 재분배 시스템> 내에 위치했다. 특히 남방의 섬이라는 자연환경으로 약재를 비롯하여 다양한 동식물의 진상이 요구되었고, 제주민인들은 줄곧 공납의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제주의 특산물과 약재 내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주목의 土貢으로 거북껍질[玳瑁]을 비롯하여 표고·우무[牛毛] 등의 특산물 그리고 비자와 유자를 비롯하여 각종 감귤류[金橘·靑橘·山橘 등]가 상납되었다. 해산물로는 전복류와 오징어·옥돔·곤포 그리고 제주의 특산목[山柚子木·二年木·榧子木]과 말을 납입하도록 했다.⁹⁾ 약재는 제주의 특산인 진피와 향재를 포함하여 백지·팔각·영릉향·오배자·치자·향부자·모과·반하·녹용·지각 등 수십 종에 달했다. 정의현과 대정현 역시 비슷한 종류의 약재와 특산물을 중앙에 진상했다.

조선전기의 지식인들에게 제주는 이미 신비한 약재를 진상하는 곳이고, 불로초의 전설과 더불어 노인성[壽星]이 비치는 장수의 고향으로 여겨졌다. 15세기 말 제주의 경차관으로 임명되었다가 표류하게 된 최부는 제주를 강릉에 비해서도 더욱 장수하는 지역으로 묘사하고 중국의 양주보다 토산물이 풍성하다고 칭송했다. 대모와 청피 그리고 백랍과 석종유 등 진귀한 약재와 물산이 많으며, 이들 仙藥 중에 분명 장수의 鍊丹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¹⁰⁾

8) 『고려사』 세가 권31 1294년 11월 4일. 탐라왕자 문창유와 星主 고인단에게 紅靛과 牙笏, 모자, 양산[蓋], 신발을 각 1개씩 하사했다.

9) 『세종실록지리지』 『제주목』 참조.

10) 김영길 역, 『(국역)증보탐라지』, 濟州文化院, 2016, 591~593쪽. “乃知仙藥百千般 (중략) 箇裏分明有鍊丹” (해당 원문의 인용이 필요한 경우는 원문을 표시했다. 이하 각주 동일)

사립과의 종장, 김종직 역시 1465년(세조11) 충청도 직산에서 제주의 약재를 싣고 서울로 가던 김극수를 만나, “진귀한 약물을 겹겹이 포장하였으니, 오매와 대모, 향부자와 청피 등 세상에 흔치 않은 活人の 물건들이 대부분”이라고 칭송했다.¹¹⁾

제주의 토산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증대되었다. 16세기 후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15세기 이래 풍부해진 제주의 물산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제주목의 경우, 가축신을 만들 수 있는 사슴과 노루에 대한 정보와 해달이나 오소리[獾] 등 특산 동물에 대한 설명이 증보되었다. 특히 “호랑이·표범·곰·이리 등 사람을 해하는 짐승이 없다”는 『풍속』조의 기록과 함께 제주의 토산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이해는 점점 깊어졌다. 동시에 거북껍질[玳瑁]과 자개[貝] 및 소라껍질의 경우도 산출 지역을 정확하게 기술함으로써-우도·대정·가파도에서 세 가지가 산출된다-제주 지역의 약재와 자원을 수합하고 재분배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 더욱 축적되었다.

제주에서만 산출되는 柑과 橘에 대한 기술도 세밀해졌다. 감은 황감·유감 등이 있고, 귤은 금귤·산귤·동정귤·왜귤·청귤 등 다섯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각 품종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전에 비해 구체적인 정보가 수록되었다. 예컨대 “청귤은 열매를 맺어 봄이 되어서야 익고 때가 지나면 다시 말랐다가 때가 되어 다시 익는다.”¹²⁾ 정부는 16세기 후반부터 果園을 설치하여 제주의 감귤류를 관리했다. 제주 전역에 19군데의 과원을 운용했는데 제주목에 9곳, 대정현에 6곳, 정의현에 5곳을 두고 감귤의 공납에 대비했다.

2) 17세기 이전 제주의 藥局

조선은 개국 초부터 지방의 약재를 원활하게 중앙으로 수집하고, 이를 다시 지방에 분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진상 약재를 수합

11) 위의 책, 594~595쪽. “包重般般藥物珍 (중략) 精英盡入活人須”

1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전라도 「제주목」 참조.

하는 창구 역할을 위해 界首官이 있는 지역에 의원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각 도에 의학교수를 파견하여 의생을 양성했다. 1407년(태종7년) 3월 제주에 의학교수가 보내졌다. 약재 진상을 위해 해민서에서 審藥이 파견되었는데, 이들이 지방 의생의 교육을 겸했다.

제주에 훌륭한 의원이 없어 사람이 병이 나면 치료할 수 없으니, 의술에 통하고 침구에 밝은 자를 보내 교수관을 삼고 계절에 따라 약재를 캐어 좋은 것을 선별하여 상공하고 생도들을 가르쳐 질병을 구제 치료하게 할 것.¹³⁾

다양한 의서도 공급되었다. 세종은 1429년(세종11) 17권의 의서를 제주에 보내 의생의 교과서로 활용토록 했다.¹⁴⁾ 문제는 의학교수의 임기가 1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부임 전까지 3~4개월을 지체하고 나면 실제 교육기간이 너무 짧았다. 제주 의생들의 실력은 정밀하지 못했고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기 어려웠다. 당시 대부분의 관료들이 제주 부임을 꺼리므로 의학교수도 1년을 임기로 정했던 것인데, 이로 인해 의학교육의 부실이 야기되었다.¹⁵⁾

세종대 제주목에는 약재 진상을 위한 수납처[藥庫]가 설치되었다. 1434년(세종16) 제주목사 최해산(1380~1443)은 弘化閣을 비롯하여 수백 칸을 신축했는데, 흥화각 주변에 獻馬를 기르는 마구간을 비롯하여 남쪽의 鍾樓와 동쪽의 藥庫 그리고 서쪽의 毒所[蠱所] 등을 모두 새로 지었다고 밝혔다.¹⁶⁾ 1487년 최부의 『표해록』에는 추쇄관으로 임명되었다가 떠나는 자신을 위해 심약 조공순이 포구에 나와 송별했다고 기록했다. 이로보아 15세기 말까지 중앙에서 파견된 심약이 약국의 토산 약재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13) 『태종실록』 태종7년(1407) 3월 29일

14) 『세종실록』 세종11년(1429) 1월 29일

15) 『세종실록』 세종13년(1431) 4월 11일

16) 이원진, 김관흠 외 역,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75쪽; 이원조, 『탐라지초본(상)』, 제주교육박물관, 2008 『弘化閣記』, 99쪽

17)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16, 28쪽 참조. 윤시동이 1765년 제주목사에 부임하여 이원진의 『탐라지』를 증보 편찬한 책이다.

이후 1511년(중종6) 제주목사로 부임한 김석철이 객사문 밖에 있었던 좌·우 위랑을 관덕정 동쪽으로 이관하면서, 좌우 행랑채에 심약이 거주하는 審藥房을 마련했다고 한다.¹⁸⁾ 심약의 근무 공간을 따로 만들어 의생들과 함께 의술을 공부하는 장소로 삼은 것이다. 1526년(중종21)에는 제주목사 이수동이 홍화각 남측에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건물을 지어 友蓮堂으로 명명했는데, 이곳에서 주로 약재와 꿀류 등의 진상물을 포장했다고 알려져 있다.¹⁹⁾

정리하자면, 15세기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제주관아의 홍화각 남측, 우련당 주변을 중심으로 약고[약국]가 마련되었고, 관덕정의 행랑에 심약방을 두어 진상 약재를 감독하거나 의생 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는 17세기 중엽 제주목사 이원진(1594~1665)이 부임할 때까지 변화하지 않았다. 1651년 제주목사에 부임한 이원진은 당시 제주 관아의 상황에 대해 “제주藥局은 左衛廊에 위치하는데 監官이 2명으로 1인은 중앙에서 파견된 심약이 겸했다”고 설명했다.²⁰⁾ 당시 14명의 의생이 배속되어 있었고 약재를 캐는 藥漢은 모두 20명이었다. 이들은 진상 약재의 채취는 물론 제주감영에서 필요한 구급약을 제조하거나 약물을 마련했다.²¹⁾

진상 약재는 한라산을 비롯하여 자연에서 채취했지만 일부는 藥圃를 두어 재배했다. 「약포」는 제주관아 이외에 다양한 곳에 위치했다. 먼저 신과원 북쪽의 약포에는 향유를 비롯하여 자소, 형개, 회향, 앵속, 견우, 수세미[絲瓜], 백편두, 청목향, 사상자를 재배했다. 토질에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재배했다. 가령 지황과 감초는 광양단에서 재배했다.²²⁾

당귀는 小林果園에서 재배했고 측백은 제주목사의 처소[上衙]나 제주관관의 처소[二衙] 등 제주목 관아 주변 및 향교의 둔전 그리고 소림과원 및 존자

18) 이원진, 김찬흠 외 역,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90쪽.

19) 위의 책, 78쪽.

20) 이원진, 『耽羅志』 「醫藥」 “藥局 左衛廊 監官二人 一人審藥兼”

21) 이원진, 김찬흠 외 역,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163쪽.

22) 廣壤壇은 한라산의 수호 신당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 「풍속조」에 遮歸堂과 더불어 제주의 대표적인 신당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곳에서 “매년 춘추에 남녀가 무리지어 술과 고기로 제사를 지냈다.”는 장소이다. 1702년(숙종 28) 이형상이 제주목사에 부임하여 광양단을 비롯한 백여곳의 신당을 소각했다.

암 둔전에서 재배했다. 감국과 규화는 제주목 뜰에 심어 감상과 동시에 진상 약재용으로 채취했다.

이처럼 제주의 약국은 제주의 다양한 약재를 채취하거나 재배하여 중앙에 공급하고 중앙에서 이를 다시 전국에 재분배하는 조선의 자원관리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방 약국(혹은 醫局)은 진상 약재를 공급하는 창구이면서도, 중앙에서 파견된 심약과 의생들 그리고 사족 중에 의학에 밝은 儒醫 등이 협력하여 다양한 약물을 제조하거나 약재를 무역하여 지역 내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초부터 조선정부는 향촌 사족들 중 일부를 의생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지방 의국에 이들 의술에 밝은 향촌 사족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의료 혜택의 확산을 도모하려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 약국의 '監官'이라는 직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원진은 당시 제주 약국의 감관이 2명인데, 한 명은 중앙에서 파견된 심약이 겸임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의 감관을 누가 담당했을까?

이원진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는 감관 2명 중 한 명은 당연히 향소의 죄수·별감 등 제주의 사족이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약국에 참여한 사족들은 심약과 함께 혹은 독자적으로 진상 약재를 관리·감독하거나 다양한 唐材와 鄉材 등을 무역, 혹은 약물을 제조하여 지방관이나는 물론 지역민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족들은 藥契나 醫局契를 만들어 약국을 운영했는데, 일종의 관·민 협동 시스템이었다.²³⁾

17세기 전후 조선의 지방 의국은 향소의 향임으로 활동했던 사족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다.²⁴⁾ 일부 사족들은 유의를 자처하여 의서 편찬에 나서거나 직접 해당 의국이나 약국에서 의술을 베풀었다. 향촌 사족들은 단

23) 조선시대 藥契 운영에 관해 처음 연구한 이규대는 강릉 약계를 지역 사족들의 활동에 국한하여 고찰했다(이규대, 『朝鮮後期 藥局契의 一考察』 『史學論叢』 (又仁金龍德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 1988). 그러나 강릉 약계는 강릉도호부의 관할 하에 있었던 공립 의약국으로 강릉 지방의 약재를 진상하기 위한 창구인 동시에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강릉의 대표적인 사족인 삼척 심씨, 강릉 함씨 등이 운영에 참여하는 이른바 사족과 관의 협동 시스템이었다.

24) 김호, 『16~17세기 조선의 지방 醫局 운영: 경북 영주의 濟民樓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7, 2018 참조.

지 중앙에 진상하는 약재의 관리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실천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유지와 안녕에 기여하고 있었다.²⁵⁾

3. 지방관의 의료 활동

1) 17세기말 제주목사 尹堦의 醫局 설립

17세기 말 제주의 의료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제주목사 등 3읍의 지방관들은 기왕의 약국[藥庫]를 넘어선 의국의 설립을 추진했다. 1672년(현종 13) 제주목사에 부임했던 尹堦(1622~1692)가 이를 주도했는데, 그는 정의와 대정의 수령들과 의논하여 ‘三邑回春局’을 출범시켰다.²⁶⁾ 이들은 의국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고 약재를 무역하여 제주민을 위한 의료 혜택의 확산을 도모했다.

윤두수의 증손인 윤계는 문장가로 명성을 날렸을 뿐 아니라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칭송이 높았다. 1671년(현종12) 흉년이 들자, 현종은 각 아문의 저장곡을 내어 백성들을 구휼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許積의 부패를 비판했던 윤계는 곤경에 처할 뻔 했지만 강직하다는 인정을 받았다.²⁷⁾ 이듬해 제주도에 연이은 기근으로 변방을 잘 다스릴 관리가 필요해지자 윤계는 일순위로 추천되었다.²⁸⁾ 1672년 2월 제주에 부임한 그는 제주민들의 구황을 돌보았을 뿐 아니라 공물의 부담을 줄이는데 애썼다. 특히 정의현에 배정된 倭楮 6백근을 면제받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²⁹⁾ 이로써 부임한지 반년 만에 그는

25) 16세기 전후 조선 사족들의 儒醫 활동에 대해서는 김성수, 『조선시대 儒醫의 형성과 변화』 『한국 의사학회지』 28-2, 2015; 김호, 『16세기 지방의 의서 편찬과 患難相恤의 實踐知』 『朝鮮時代史學報』 89, 2019 참조.

26) 『증보탐라지』 권3 『醫藥』.

27) 『현종실록』 현종12년(1671) 6월 19일 영의정 허적이 윤계의 상소로 면직하다.

28) 『승정원일기』 현종13년(1672) 2월 18일.

29) 『승정원일기』 현종13년(1672) 윤7월 14일 “頃日濟州牧使尹堦啓聞中, 旌義縣, 有倭楮六百斤云云 只有虛簿, 而無即今土産, 必是古有而今無者, 亦可蕩滌矣 上曰依爲之” 당시 윤계는 왜자가 삼남의 해안, 가령 고성 앞바다의 자란도에서 채배되지만 제주에는 이미 산출되지 않자 탕척을 요구했다.

제주민의 큰 칭송을 받을 수 있었다.³⁰⁾

윤계의 지적 중 의국[三邑回春局]의 설립과 운영은 특별했다. “약재가 절무하여 병들면 손놓고 죽음을 기다리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대로, 의국은 제주에 없는 약재나 약물을 사들이거나 제조하여 제주관아의 관속뿐 아니라 제주민인들에게 제공했다.

회춘국의 운영자금을 위해 제주목을 비롯하여 정의와 대정현에서 매년 미역[春藿] 100뭇[미역 12줄기가 1뭇이다.]과 가을전복[秋全鮑] 2점(100개가 1점) 씩을 내어 자본금으로 삼았다. 회춘국은 미역 300뭇과 전복 6점을 자본금으로 당약재와 향약재 등을 무역했으며, 아울러 3읍 관아의 관속들을 위한 약물을 제조했다. 나아가 민간에도 필요한 약물을 표준가격으로 공급했다.³¹⁾ 약값 지불을 위한 價物帖은 조선의 지방 의국들이 기금을 存本取利하여 유지해나갔던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³²⁾

이처럼 제주 의국[회춘국]은 진상 약재만을 관리 감독하던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제주민인들을 위한 약물 제조 및 약재 수급에 나섰다. 가령 1711년(숙종37) 제주 교생 강필성은 제주목사에게 所志를 올려 의국의 약값 상황을 연장해 달라고 청원했다. 당시 강필성은 자신의 증조부와 조부 그리고 아버지가 연이어 병환을 얻어 제주 의국에서 복용한 약물이 백여 첩을 넘는다고 말했다. 강필성은 의국의 외상을 변제하기 위해 제주의 토산물을 육지로 가져나가 팔아 자신이 의국에서 구매했던 약재를 무역하여 현물[藥材]로 납부하고자 했다. 그런데 의국의 변제 요청이 심해지자 소지를 올려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³³⁾ 조선의 지방 의국들은 여러 약물을 제조하거나

30) 『현종개수실록』 권26 1672년(현종13) 8월 11일; 『陶谷集』 권22 『戶曹判書尹公諡狀 - 己未(1739)』 이후 1689년(숙종15) 기사환국으로 허적이 정권을 잡자 강진으로 유배되었다가, 몇 년 후인 1692년(숙종18) 유배지에서 병사했다.

31) 『攷事撮要』에는 당시 표준 약재가격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서울의 삼의사와 지방 의국의 약물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32) 『증보담라지』 권3 『醫藥』“(增)醫局(중략) 本州醫藥絕無 凡有疾病 束手待死 顯廟壬子牧使尹塔 蓋然興嘆 與三邑守宰相議 設醫局 名之曰三邑回春局 本錢則三邑每年春藿一百束秋全鮑二貼式 各自料理措備 唐鄉藥材 連屬買來 以爲三邑及幕下與衙屬 服藥後價物帖給 民間疾病 願服之藥 依詳定捧價劑給”

33) 고창석, 『제주도고문서연구』, 도서출판 세림, 2001 참조.

해당 지역에서 구하기 어려운 약재를 미리 마련해 두었다가 이를 판매한 이익으로 운영해 나갔다. 제주 의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마 지나치게 약재를 비싸게 팔자 강필성이 현물로 갚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⁴⁾

한편, 18세기 초 이형상이 제주목사로 부임했을 때도 제주 의국은 여전했으며, 이는 18세기 3,40년대까지 이어졌다. 1737년 제주에 유배되었던 아버지를 시측하기 위해 동행했던 김낙행(1708~1766)은 다리가 부어 고생하는 부친을 위해 의약에 밝은 제주목사의 裨將에게 처방전을 받아 의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의국에 산조인이나 죽령고 등 필요한 약재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인삼은 원래 제주에 없어 구하기 어려웠지만 우황마저 모두 육지에 팔아버려 전연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제주에는 후박·진피·청피·반하·치자 등 5종 이외의 약재를 모두 육지에서 매입하였기에 매우 귀했다. 심지어 녹용이나 상기생 같은 토산물조차 구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³⁵⁾

1744년(영조20) 제주 열녀 홍씨의 일화에서도 의국 운영의 증거가 확인된다. 제주목의 서리 김창욱에게 시집갔던 홍씨는 남편이 위독하자 의국에서 필요한 약물을 구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기근으로 배를 굶은 심부름꾼이 중간에 쓰러져 남편의 약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비판한 홍씨가 자진했다는 이야기다.³⁶⁾

그러나 이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18세기 중엽에 이르자 3읍의 미역과 전복 등을 출연하여 기금으로 존본취리하던 의국의 운영은 중단되고 말았다.

『校生姜弼聖所志』 “右謹言所志矣段 矣曾祖父忽然得病不得救療 公私藥房良中 劑藥救療是白如可不幸身死 祖父亦以得病 同藥物多數貸出 服藥是白如可 又爲身死 未過三年 父亦鱗次得病 卽今官家藥物隨所入劑藥 救病之中 前後藥貼數計之 則將至百有餘貼是白乎矣 矣身至貧寒備 不小藥價 勢難備納之路是白乎等以 土產措備出陸 質藥入來然後 以本色備納事 前使主遞任之 右由呈狀則依願□爲白有乎矣 同質藥使人 今不入來爲白有在女中同藥價催促爲白臥乎 所勢不得已 前立旨粘呈爲白去乎限 質藥使人入來 本色備納間 姑爲緩督事 立旨行下爲白只爲行下向教是事 使道 處分”

34) 19세기 초 제주목사 심영석이 250냥을 자본금으로 의국을 개설하면서, 민간에 원가대로 약재를 공급하도록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 『耽羅志草本(下)』, 23쪽 “醫局：至純廟丁亥 牧使沈英錫 出錢二百五十兩 添補以爲營用 民間則捧本價製給”

35) 『九思堂先生文集』 권2 『答李伯實 - 東英○戊午(1738)』 “冬間問藥於濟州福神善醫者 用湯劑 期以累十貼而以藥局無山棗仁故 迄未繼用 竹瀝膏僅得數三升而用之 此島取瀝竹絕貴且無生薑 良可悶塞 (중략) 人參元非島物 大抵藥材中厚陳青半梔五種外 皆貿易而入來耳 如鹿茸桑寄生之類 固是土物 而此則絕無而僅有者耳”

36) 金錫翼, 홍기표 외역, 『(역주)탐라기년』, 제주문화원, 2015 참조.

약재를 무역하고 필요한 약물을 제조하는 일이 일종의 職役으로 여겨지면서 무언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고 사족들의 참여도 이전 같지 않았다. 이에 1761년 제주목사 윤시동은 교대로 質藥의 직역을 담당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그 대신 안정적으로 운영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平役庫[제주의 균역청]에 납부된 곡식 가운데 30석을 기금으로 변통하기도 했다.³⁷⁾

사실상 제주 의국은 지방관의 의지만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 반드시 향촌 사족들의 협조가 필요했다. 1827년(순조27) 제주에 부임했던 심영석(1767~?)은 당시 의국의 문이 굳게 닫혔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250냥을 마련하여 다시금 의국을 再開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다.³⁸⁾ 지방 의국 운영의 성공은 지방관의 노력과 의국의 공공성을 지지하는 사족들의 자발적인 호응이 뒤따라야만 가능했다.

2) 18세기 초 제주목사 이형상의 본초 연구

1702년 이형상이 제주목사로 부임했을 때 30여년 전 윤계가 창설했던 의국[회춘국]은 줄곧 유지되고 있었다. 당시 이형상은 관덕정을 설명하면서 좌측 행랑 48칸 가운데 일본어 통역관인 譯生의 사무소를 필두로 붓과 화살 등을 제작하는 장인들의 처소 그리고 나장과 취수의 거주처와 심약이 근무하는 약방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이곳 약방에서 심약은 의생들과 더불어 진상 약재를 관리했다. 18세기 초 제주의 의생은 62인이었으니,³⁹⁾ 1651년 14명이었던 의생의 수가 50년 만에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던 것이다.

관덕정의 우측 행랑[右衛廊] 56칸 가운데 제주목 서리들의 처소와 함께 회

37) 『증보탐라지』 권3 「醫藥」, “(增)醫局 (중략) 三邑藿腹 今廢不捧 只捧土山藥材於兩縣 [補]中年 名之 以醫局 除番直捧質藥矣 辛巳年移付平役庫捧米後質藥 本錢次夏秋并三十石下”

38) 『耽羅志草本(下)』(제주교육박물관, 2008), 23쪽 “醫局: 監官一人 醫生十二人 藥漢四名 景廟壬子 牧使尹塔創設 名之曰三邑回春局 本錢自三邑出藿腹 質來唐材 進上諸藥及營用常材 則藥漢採納 其法中廢 至純廟丁亥 牧使沈英錫 出錢二百五十兩 添補以爲營用 民間則捧本價製給” 심영석은 남인계 학자로 순조대 김조순의 안동김씨가문을 비판했다가 유배되기도 했다(『순조실록』 1829년(순조 29) 7월 20일 참조).

39) 이형상, 이상규 외역, 『誌吏』, 『남한박물지』, 푸른역사, 2009 참조.

춘국[醫局]이 있었다. 이곳 의국에서 제주 鄉所의 죄수·별감 등 의학에 밝은 사족들이 심약을 도와 제주의 진상 약재를 관리 감독할 뿐 아니라 제주에 없는 약재나 약물들을 무역하여 제주관아의 관리들과 제주민인들을 위한 약을 제조했다.⁴⁰⁾

지방의 의료 혜택을 확산하려면 무엇보다 해당 지방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했다. 지방관들이 위기지학을 강조할수록 경학 뿐 아니라 의학과 같은 실용학문이 더욱 절실했다. 이들 務實 학풍의 지방관들은 관내의 의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의서를 편찬하는 등 단순한 행정 관료 이상의 역할을 해내었다.

이상의 관점에서, 1702년 제주에 부임했던 이형상의 활동은 가히 독보적이었다. 그는 심약 윤기은을 데리고 제주를 순력하면서, 果園이나 藥圃 등을 탐방하고 그 위치와 상태를 『탐라순력도』에 남겼다.⁴¹⁾ 박학다식했던 이형상은 본격적으로 제주의 식생과 본초를 연구했고, 그 결과 조선시대 가장 뛰어난 지리지인 『남한박물지』를 편찬했다.

이형상은 「誌禽」·「誌獸」·「誌草」·「誌木」 등을 항목으로 설정하여 제주의 산천초목과 동물들의 생태를 변증했다. 가령 이원진의 『탐라지』에 부영이가 없다는 기록이 오류임을 논증했다.⁴²⁾ 또한 제주 해안에 떠 내려온 고래[鯨魚]를 직접 관찰하기도 했다. 당시 목격한 고래는 길이 125척, 너비 10척, 높이 32척의 거대한 몸집이었다. 이형상은 고래의 배 부위에 주렴[簾]처럼 겹겹이 얹힌 부위가 있다고 서술하고, 부드러운 아가미의 움직임이 장막과도 같다고 서술했다. 특히 입에서 정수리 부위에 뒷박[斗] 크기의 구멍으로 물을 쏘아 올리는데, 머리는 새처럼 보이지만 꼬리는 어류와 같다고 설명했다.⁴³⁾

40) 『남한박물지』 「誌麻」 참조.

41) 『남한박물지』 「誌名宦」 “壬午年與余同仕者 判官文科李泰顯 大靜縣監文科崔東濟 旌義縣監文科金益九 武科朴尙夏 教授文科李東植金園皓 監牧官賞職金振琳 審藥醫科尹起殷前銜崔屋 漢學譯科吳震昌李禧 倭學前銜朴世英崔壽宗也”

42) 『南宦博物誌』 「誌禽」 “禽有鷹雉烏鴟鷲[無胡鷲] 雀鷗鷺野 鶴鶻鷓鴣 梟鷓鷓無鷓鷓[地誌無鷓鷓者 誤傳也]”

43) 위의 책, 「誌魚」 “當余之在任時 果有斃鯨 漂掛浦邊 身親見之 長一百二十五尺 廣十尺 高三十二尺 自腰至腹 簾肉層纏 軟顛浮搖 有如張幕 歧口至頂 其孔如斗 此爲噴水所射也 首類鶴尾類魚 (중략) 皆曰此爲今年生 可想其大者之尤大也”

이형상은 제주의 초목을 상세하게 변증했다. 제주에는 사계절 푸른 나무들이 다양하게 서식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고 기술한 후, 식용 가능한 채소[菜] 가운데 고사리 종류[薇蕨]가 가장 많으며, 상추[蒿苣], 무[蔓菁] 양하[囊荷] 등이 여름과 겨울 모두 푸르게 자란다고 기술했다.

이형상은 약재로 삼을만한 제주의 토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제주에 자생하는 다양한 香材에 주목했던 그는 ‘용뇌향’을 대체할 노목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형상은 노목의 향기를 응축할 방법은 잘 모르지만 본초서를 보면 나무의 기운이 세어 나갈 경우 수액의 채취가 불가능하므로 노목을 도끼로 베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⁴⁾ 또한 점목(黏木)의 활용법에 대해, 껍질을 채취하여 두드려 가루낸 후 물에 담가 찌꺼기를 버리면 즙을 얻는데 이를 발라두면 새나 쥐 그리고 뱀들이 달라붙어 움직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점액질을 이용한 벌레 퇴치제를 개발한 셈이다.⁴⁵⁾ 이형상에게 제주의 식생은 미지의 연구 대상이었으며, 약재는 물론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였다.⁴⁶⁾

한마디로 이형상의 『誌藥』은 본격적인 제주의 본초서였다. 그는 녹용을 비롯하여 松寄生, 桑寄生, 香蕈[표고], 陳皮[산골의 껍질], 靑皮[청골의 껍질], 桅子, 회향, 팔각향, 영릉향, 안식향[黃漆木의 진액], 지각, 지실, 후박, 고련근, 海桐皮, 팔징가, 석곡, 無患子, 蜀椒, 두충, 천문동, 맥문동, 향부자, 만형자, 반하, 석종유, 백랍, 석결명, 오미자 등 수십 종에 달하는 제주의 약재를 연구했다.

이형상은 제주의 수풀 속에 자라고 있는 기이한 꽃들과 특별한 초목 중 생명을 연장할 불로장생의 약초가 있을 터인데 더 이상 자세히 알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면서도,⁴⁷⁾ 오미자를 연년익수의 최고 약재로 꼽았다. 제주의

44) 위의 책, 『誌木』 “樅木 有腦香氣 似是龍腦木 而不知採之之法 本草曰泄氣則無液 此或斧斤所侵 而未成耶”

45) 위의 책, 『誌木』 “黏木 皮如厚朴 櫛爲末 水洗去滓 取汁着物則鳥鼠虫蛇之類 黏合如膠 不能搖動”

46) 위의 책, 『誌木』 “無患子 冬春栢 側栢 樗木 桑木 漆木 及名不知 四時青者甚多”

47) 위의 책, 『誌藥』 “林藪間 奇花異草 必有延年益壽之藥而無有知者 秦漢時所謂不老長生之名 其或指此歟”

오미자는 산포도와 같고 색이 검붉었다. 그는 약간 산미가 있지만 매우 달콤한 제주의 오미자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絶味’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본초』에도 조선의 오미자를 최고품이라고 했고, 『제주풍토록』에서 김정 역시 제주의 오미자를 가장 귀중하다고 언급했으니 천하의 최고를 의심할 바 없다는 것이었다.

이형상은 제주의 물산 가운데 반하와 향부자 그리고 올미역[早藷]과 미역귀[藷耳] 등을 이미 진상하고 있지만, 오미자와 같은 극품의 열매를 진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미자는 반드시 사옹원에 납입하여 御膳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⁸⁾ 박학의 이형상에 의해 제주의 다양한 물산이 새롭게 조명되는 순간이었다.

시대가 흐를수록 제주의 식생에 대한 정보는 더욱 풍부해지고 보다 정확해졌다. 가령, 17세기 중엽 이원진은 『탐라지』 「토산」에서 赤栗과 可時栗을 소개하면서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못했다.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리실[菩提實]에 대해서도 연밥과 비슷한데 세속에서 설사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한다고 기록했을 뿐이다.⁴⁹⁾ 18세기 초 이형상은 『남환박물지』에 이들 물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보충했다. 적을은 도토리열매처럼 생겼는데 그 맛이 달기도하고 쓰기도 하지만 요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가시울은 밤처럼 생겼지만 그 맛이 쓰다고 설명하고,⁵⁰⁾ 모두 식용 가능하다는 정보를 부기했다.

보리실에 대해서는 별달리 증보된 내용이 없지만, 한라산 정상에서 볼 수 있는 단맛의 검은 열매 영주실[瀛洲實]을 추가했다. 또한 으름열매로 알려진 燕覆子を 새롭게 변증했다. 『본초』를 보면 씨앗이 산낭[산가지]를 담은 주머

48) 위의 책, 「誌藥」 “體如山葡萄 色赤黑 少酸多甘 余之狀啓畧曰本島五味子 世稱絶味 雖以本草 及先輩所論觀之 本草曰産朝鮮者良 又云味甘者爲上 先正臣 金淨 濟州風土錄 曰我國産者 實紫少味多酸 猶見重於本草 此土産者 必高於天下無疑矣 非但古人所論 如此體大味甘 又非陸産之比也 本州藥材中 半夏香附子之屬 物産中早藷藷耳之類 皆在貢案 况此佳品 又合御供者 而反爲落漏 本島民力 雖難於進上輸納 此是天下所無之物 則揆以分義 不當掩置 五味子五斗 冷番歲抄 進上時 一體監封 上送于厨院 明年爲始 仍爲貢獻 何如”

49) 이원진, 김찬흡 외 역,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54~55쪽.

50) 이형상, 이상규 외 역, 『남환박물지』, 푸른역사, 2009, 139쪽.

니] 같다고 하였으나, 세속에서 연복자라고 말하는 것은 형태가 둥글고 밖이 터져 산낭과는 다르고 으름과도 같지 않다고 변증했다. 의서에 보이는 연복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맛을 본 결과 매우 달고 상쾌하므로 痰滯의 치료 약물로 사용할만하다고 설명했다.⁵¹⁾ 이형상은 직접 식물의 열매를 채취하거나 맛을 보고 약성을 탐구했다. 한 지방관의 박학과 의학에 대한 조예는 지역의 약재를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18세기 중엽, 제주목사 윤시동은 의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주의 식생과 본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팔각이나 팔징가와 같은 향신료는 그 용도가 매우 다양했다. 윤시동은 햇별을 향한 팔징가가 胡椒인 줄 몰라 채취하지 않는 의생들을 비판했다.⁵²⁾ 또한 적을과 가시울은 맛이 좋으므로 수집해 두었다가 구황에 대비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⁵³⁾

4. 제주의 주변성과 ‘사회적 자본’

1) 사족의 더딘 성장

1712년 제주관관에 부임했던 우암 남구명(1661~1719)은 제주의 풍토와 생활상을 자세히 남겨 두었다.⁵⁴⁾ 그는 제주의 자연 및 인문 환경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⁵⁵⁾ 특히 제주의 음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그는 쌀이 부족하고 생선과 같은 해산물 위주의 식생활로 인해 자신이 쇠약해진다고 한탄했다. 남구명이 임실군수에게 보낸 편지에는 조식 밥상에 이름 모를 생선이

51) 『남환박물관지』 「誌果」 “燕覆子 (중략) 本草云 子如算囊 俗所謂燕覆子 形彎曲而外面坼裂 不如算囊 而意此眞燕覆子云 今觀其形皮不坼 則與林下夫人不同 燕覆子眞僞 亦未可知 而味極甘滑清爽 似是下痰之藥也”

52) 위의 책, 171쪽. “華澄茄 醫生等不知覓採 又不知華澄茄之向陽者 爲胡椒 可嘆”

53) 김영길 역, 『(국역)증보탐라지』, 濟州文化院, 2016, 38쪽.

54) 南九明, 김영길 역, 『(國譯)寓庵先生文集』, 제주교육박물관, 2010 참조.

55) 위의 책, 235쪽, “十五日早發 入羅州城 見本倅李萬稷 萬稷曰以兄拜濟判 朝廷之薄待極矣 公然一定配矣”

올라 먹을 수조차 없고, 쇠고기는 곡식이나 꿀을 충분히 먹이지 않아 씹을 수도 없다는 불멘소리가 가득했다.⁵⁶⁾ 제주의 음식은 오직 비위를 손상케 할 뿐이라는 것이었다.⁵⁷⁾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제주를 장수의 고장으로 여기고 불로초를 찾는다면 비판했다. 한마디로 무식한 자들은 불사초가 있지만 구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유식한 이들은 불사초의 유무를 알 수 없다하니 결론적으로 불사초는 靈草가 아닌 사시사철 푸른 잡초에 불과하다고 논증했다.

특히 그는 제주인들이 불사초를 먹어 장수한다고들 하지만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제주에서 경험한 바, 토질이 척박하여 쌀이 없기에 부자도 조밥(粟飯)과 콩죽을 먹을 뿐이요, 가난한 자는 산의 열매와 해조류에 의지할 뿐이라는 것이다. 의식주가 모두 거칠어 저절로 깊은 산중의 도사나 승려처럼 벽곡의 모양새가 되어 수척한 선인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다. 남구명은 제주의 장수 문화는 역설적으로 기거와 음식이 열악하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⁵⁸⁾

물론 그렇다고 남구명이 제주인민에 대한 愛民의 마음이 전연 없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제주의 공물이 지나치게 많아 많은 사람이 고통받자 이를 안타깝게 생각했다. 조선 정부가 처음에 제주에 세금을 없애주는 대신 귀한 약재를 바치도록 했는데 점점 내의원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고통이 심해졌다고 보았다.⁵⁹⁾ 특히 상의원에서 향약을 만들기 위해 제주의 자단향을 요구하고,⁶⁰⁾ 청굴과 진피 등 약재를 공납하면서 고역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구명이 생각한 제주의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인의 부재'였다. 제주에 한자를 읽을 줄 아는 이가 없다는 주장은 16세기 김정 의 『풍토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정은 생원 김양필 한 사람 이외에 글을 아는 자가 전연

56) 위의 책, 248쪽.

57) 위의 책, 71쪽.

58) 위의 책, 287쪽.

59) 위의 책, 129쪽.

60) 위의 책, 131쪽. “仙界의 진귀한 나무 모진 풍상 건디니[名區珍木傲風霜] 공납 명령으로 해마다 거친 바다 건너네[納錫年年犯大洋] 한밤에 특별한 관문 성화처럼 급하니[半夜別關星火急] 尙方에서 紫檀香 진상하라 독촉하네[尙方催促紫檀香]”

없다고 단언했다. 문리에 밝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은 제주 사람들이 대부분 문보다는 무와 관련된 일에 만족했다는 의미였다. 제주의 세력있는 자들은 감영에 딸린 진무를 바라거나 군교를 희망했다. 어느 정도 문리가 필요했던 書員 등의 자리를 품관사족이나 호강들이 아닌 평민이나 향리들로 충원했다는 것이다.⁶¹⁾

‘지식인의 부재’는 17세기에도 지속되었다. 김상헌은 제주목사가 교생들로 하여금 성돌레를 순찰하도록 시키는 등 학생을 노예처럼 부리고, 營軍官들도 교생들을 때리거나 토색질의 대상 정도로 생각할 뿐이라 교생들이 도중에 학문을 포기하고 무과로 출신한다고 지적했다.⁶²⁾

학문하는 이들에 대한 멸시는 제주의 다른 두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정과 정의현에 부임한 지방관들도 교생을 하대하기 일쑤였다. 사또들 뿐 아니라 향교의 훈도나 교수들도 학문을 가르치기보다 주로 토산물이나 가축을 요구하는데 열중했다. 교생들은 공부 대신 제주에 유람 온 이들의 심부름꾼이 되었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방관들의 매질을 피하기 어려웠다.⁶³⁾

결국 제주인들은 관아의 군교나 서리를 가장 만족할만한 성취로 생각할 뿐 학문은 관심 밖이 되었다는 것이다. 文識보다 돈벌이를 택하는 제주민인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18세기에도 여전했다. 남구명은 제주사람들이 관기를 가장 희망한다며 개탄했다. 제주사람들은 기생을 으뜸, 관노를 들째, 아전을 셋째, 假卒을 넷째, 향임을 다섯째, 선비를 여섯째로 친다는 것이다.⁶⁴⁾ 관기를 희망했던 이유는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제주의 기생들 중 비단 옷을 입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평양기생을 방불했다는 것이다.⁶⁵⁾

대부분의 제주민인들이 공부하여 중앙의 관료를 꿈꾸기보다 제주의 서리

61) 『冲庵集』 권4 『濟州風土錄』, “土人生員金良弼外 識文者絶少 人心鹵莽 自品官下至微者 皆交結朝貴 [無人無願佛者] 其豪右求爲鑽撫[土人自星主以來 流風已然 不足怪也] 次者旅帥 次者書員[此以下非品官] 持印貢生[皆平民等鄉吏]”

62) 김상헌, 『남사록』, 제주문화원, 2008, 170쪽 참조.

63) 김영길 역, 『(국역)증보탐라지』, 濟州文化院, 2016, 758쪽 『學校』 참조.

64) 『우암선생문집』, 132쪽 참조, “方言 有一妓生 二官奴 三衙前 四假卒 五鄉所 六先非之語”

65) 『(국역)증보탐라지』, 147쪽, “故官妓之稍饒者 無不被羅綺曳綵縠 彷彿關西”

를 바라거나 진무가 되어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비판은 조선 오백년동안 변함이 없었다. 19세기 초 제주목사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土俗」조에는 경직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不貴京職] 제주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실려 있다. 제주 사람 가운데 제주와 명망이 있는 자들은 제주관아에서 일하려할 뿐 경직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⁶⁶⁾

제주의 호강이나 사족층으로부터 상천에 이르기까지 학문보다 武弁이나 상업에 종사하면서 당연히 제주 사족의 성장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제주 읍지의 「인물」조는 이러한 경향을 확인해 준다. 18세기 중반 『증보탐라지』에 수록된 조선시대 제주의 인물들은, 제주인 최초로 문과에 합격하여 한성 판윤에 올랐던 고득중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 고태필(문과)과 후손인 고흥진 그리고 오섬 정도였다. 이외 김정이가 제주에서 글을 이는 유일한 사람으로 칭송했던 김양필(생원)과 서당(藏修堂)을 건립했던 김진용(생원), 제주목사를 도와 부역을 고르게 처리한 문영후와 과거급제 후 제주교수로 활동한 정희관 정도에 불과했다.⁶⁷⁾ 김진용이나 문영후 등은 제주목사를 도와 지역의 서당을 설립하고 세금과 부역을 고르게 하였고, 정희관은 제주의 교수직을 통해 학문을 진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향촌 사족들이야말로 지역의 여론을 이끌면서 지방관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 의국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요한 인적 자원이었다. 제주 사족의 더딘 성장은 향약에 의한 향촌 자율 대신 제주의 독특한 통치방식인 경민장 제도로 이어졌다. 이는 조선전기의 讀法 전통을 따라, 『경민편』에 수록된 각종 범죄와 그 처벌 내용을 읽어주며 백성들을 겁박한 통치법이었다. 정조는 경고야말로 올바른 교화의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⁶⁸⁾ 제주는 예외적으로 19세기까지 경민장 제도가 유지되었다. 제주의 100여개에 달하는 리 마다 법을 어긴 경우 처벌 조항을 읽어주는 경민관을 두었던 것이다.

66) 『탐라지초본』, 51쪽 참조.

67) 『(국역)증보탐라지』, 562~569쪽 참조.

68) 김호, 「權道의 성리학자 金正國, 『警民編』의 역사적 의의」 『동국사학』63, 2017 참조.

제주 사족의 지체는 외국에서 활동할만한 儒醫들의 부재를 야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구명이 극찬했던 제주의 관노 김상식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남구명의 『상식전』에 의하면, 김상식은 몸가짐이 항상 고요하고 깨끗할 뿐 아니라 하인배들처럼 거칠고 호기를 부리지 않아 식자들이 특히 좋아했다. 어느 날 풍병의 조짐을 발견한 남구명은 곧바로 의서에 해박하다는 김상식을 초빙하여 혈자리에 뜸을 뜨도록 했다.⁶⁹⁾ 분명 김상식은 문장에 뛰어난 뿐 아니라 醫方이나 相法 그리고 卜筮와 풍수 등에 두루 밝았다. 그의 재주를 아낀 남구명이 여러 서책을 구해 줄 터니 공부를 계속하도록 격려했다. 그런데 김상식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어찌 자신의 기여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분에 넘치는 재물을 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남구명은 김상식을 제주의 군자라고 칭송했다. 그는 덕을 베풀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았고 스스로 노력하여 먹을거리를 얻을 뿐 타인에게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니, 분수껏 살면서 칭송을 구걸하지 않는 진정한 군자라는 것이었다.⁷⁰⁾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상식은 관노에 만족할 뿐 공공을 위한 의국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제주의 의국이 지속가능하려면 의학에 밝은 지식인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제주에서 이와 같은 유의 흔적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직, 진좌수 전설로 전해지는 명의 진국태(1680~1745) 정도가 유일하다. 그의 명성은 현재까지도 ‘제주의 四絶’로 칭송받으며 제주에서 가장 의술이 뛰어났던 명의로 추앙받고 있다.

진국태는 좌수라 불렸던 만큼 향소에서 활동한 사족으로 의술에 뛰어나 의국 운영에도 참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확실한 역사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 단지 몇 편의 전설만이 전부이다.

어려서 서당에 다니던 그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묘령의 여인이 준 구슬을 입에 물었다가 증병을 앓게 되었는데, 이를 걱정한 서당의 훈장이 한 가지

69) 『우암선생문집』, 『상식전』 “余有風漸 以植頗解醫方 招而灸治風諸穴”

70) 위의 책, 『상식전』 “植種德而不求報於人 食力而不求利於人 安分而不求慕於外 (중략) 得見君子者斯可矣”

방법을 알려주었으니 여인의 구슬을 삼키도록 한 것이다. 이후 구슬을 잃은 여인은 한 마리 여우로 변하였고 구슬을 삼킨 진국태는 사람의 질병을 모두 알아보는神通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한편, 진국태는 남편의 병구완을 위해 찾아온 여인을 보고 그녀를 강간한 두부장수에게 부인의 액운이 옮겨가 남편이 곧 쾌차할 것을 예언했다거나, 대정의 한 소년이 병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찾아오자 ‘해골의 지렁이물[人頭骨의 雙龍水]’을 처방하여 치료했다는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다.⁷¹⁾ 후일 그의 명성은 중국에까지 알려져, 큰 醫星이 떨어진 것을 본 중국인이 제주의 진국태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⁷²⁾

2) 巫와 醫의 갈등 양상

제주의 儒醫로 불릴만한 이들은 관노 김상식과 좌수 진국태가 전부였다. 사실 김상식은 관노로 평생을 살아갔으며 제주의 향소와 의국에서 활약했을 법한 진좌수 역시 자세한 활동을 고찰할 길이 없다.

제주 儒醫의 부재 혹은 지체 현상은 관의 명에 따르면서도 향촌의 자을을 도모하고, 중앙에 약물을 공급하면서도 지방민을 위한 의료혜택에 앞장섰던 사족들의 자발주의를 제주에서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제주에 부임한 지방관들이 17세기 말 이후 여러 차례 의국의 복설을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던 배경에, 의국을 떠맡을 ‘향촌 사족과 儒醫의 부재’가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물론 향소의 좌수·별감이나 의국의 유의 등이 한편으로는 지방관을 도와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향촌 공동체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었으므로, 야생마처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제주인의 기질에 鄉職이 어울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⁷³⁾

71) 진성기,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68, 272~273쪽, 진국태의 후손들이 1956년부터~1961년 사이에 제주도에 전하는 진국태의 전설을 수집하였고 후일 진성기의 책에 채록되었다.

72) 김석익, 오문복 외역, 『탐라인물고』, 『濟州속의 耽羅』, 보고사, 2011 참조.

73) 『우암선생문집』, 132쪽. 남구명은 제주말[馬]에 빚대어 제주인의 야성적 기질을 칭송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무당들의 존재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각종 질병과 대규모 희생자를 야기했던 역병은 제주라고 예외가 아니었고, 무당들이 그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제주의 무당은 그 연원이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강고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미 15세기에 최부는 제주의 촌인들은 거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고 읍내 사람들조차 약물을 구할 수 있으면 복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을 먹지 않았다고 토론했다.⁷⁴⁾ 약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대부분 속수무책이거나 무당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충암 김정(1521~1588)의 『풍토기』에 그대로 이어졌다. 1521년(중종16) 김정은 수정사의 증수를 축하하는 기문에서 제주 사람들 중 道學(성리학)을 이는 이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질병이나 재액에 귀신에 기도하고 푸닥거리를 일삼는다고 비판했다.⁷⁵⁾

무당이나 음사에 대한 제주의 숭상과 이에 대한 지방관이나 유배객의 비판은 19세기 말까지 이어졌다. 1628년(인조6) 제주에 유배되었던 李健(1614~1662)은 뱀을 신령스럽게 생각하는 제주의 풍속을 비판하고, 자신이 수백 마리의 뱀을 죽였지만 아무 탈이 없었다며 제주의 음사를 고발했다.⁷⁶⁾ 이것은 제주에서 질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죽을 뿐, 침과 약물을 구할 도리가 전연 없다고 서술했다. 유배지 중 제주를 가장 극형의 땅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다. 이견은 당시 제주목사는 물론 대정·정의현의 사또들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는데도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웠다고 토론했다.⁷⁷⁾

제주의 음사 풍속과 관련하여 이형상을 빼놓을 수 없다. 주지하는 대로 그는 제주의 당집 등 음사를 철저히 소각했다. 무려 백여 군데의 신당을 불태우고 4백여 명의 무당을 귀농시켰던 장본인이었다. 이형상은 무당들이 사람들의 재앙을 빌미로 공갈하여 재물을 취하는 것이 흠을 굶어 담듯 쉽다고

74) 『(국역)증보탐라지』, 139쪽, “村民則曾未有以藥試之者矣 城中之人疾病 得藥則服之”

75) 『冲庵集』 권4 『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

76) 『葵窓遺稿』 권11 『濟州風土記』

77) 위의 책, 권11 『濟州風土記』

비판하고, 제주 무당의 번성한 이유가 제주인들의 음사에 대한 신앙, 귀신을 믿는 풍속 때문이라고 강조했다.⁷⁸⁾

제주의 무당들은 계를 조직하여 상호 협동했는데 그 수가 무려 천명이 넘었다. 이들은 거짓으로 귀신의 재앙이라며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재물을 내놓지 않으면 귀신이 보낸 차사라며 민가를 약탈했다. 이형상은 이들이야말로 도적의 무리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⁷⁹⁾

이형상은 제주인들이 증병에 걸려도 약을 복용하지 않는데 귀신이 노한다고 두려워하면서 죽을 때까지 고치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부모의 숙환이 오래되어 치유가 어려우면 자녀들은 귀신에서 속히 죽게 해달라고 빈다는 것이다. 이를 효성으로 칭송하니 야만의 풍속이 분명하다고도 비판했다.⁸⁰⁾

당시 제주에 유배 중이던 오시복(1637~1716)은 이형상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주의 품관사족들마저 무당의 위세에 눌려 음사를 비판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는 무당들과 이익을 나눌 정도라고 보았다. 이형상의 신당 소각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치적으로, 제주의 유식자들이 무당의 행패를 막아준 일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이곳에 스스로 유식하다는 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지금 이후(神堂 소각)로는 섬에서 빌어먹고 도랑에 넘어지는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기에 내가 묻기를 “음사를 불태웠는데 빌어먹는 자가 없게 된다니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지극히 가난하고 흉악한 백성인 무당[堂漢]들이 제멋대로 공갈하여 흠웃을 빼앗고 조석거리를 노략질해 가져가기에 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라고 답하니 말이 역시 이치에 가깝습니다.⁸¹⁾

이형상의 음사 소각은 제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제주 父老 중 유식한 이들이 목사 이형상을 찾아와 “음사는 이미 없었으니 이제 의약에 힘쓰지

78) 이형상, 이상규 외역, 『남환박물지』, 푸른역사, 2009, 115쪽.

79) 위의 책, 117쪽.

80) 위의 책, 116~117쪽.

81) 제주민속지연사박물관 편, 『이형상제주목사관련편지모음집(1)』, 2017, 72쪽.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의 심약은 매번 약재 이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진실로 충실한 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원하건대 이러한 뜻을 조정에 알려 醫理를 이는 자를 연속하여 보내주시면 민심이 고정될 수 있고 오래 쌓인 폐단이 제거될 것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⁸²⁾

뛰어난 심약을 제주에 파견하여 다시금 의생을 훈육하고 이들을 통해 의료 혜택의 질이 높아질 것이 분명했다. 그 결과인지 이형상은 자신이 재직하는 동안 두창이 제주 전역을 휩쓸었지만 神床을 설치하거나 기도하는 대신 사람들마다 약을 복용했다고 강조했다. 예전에 없던 일이었다.

그러나 이형상이 체직되고 후임 이희태가 부임하자,⁸³⁾ 곧바로 굿판이 재개되었을 뿐 아니라 신당이 재건되었다. 물론 의생도 혁파되었다. 이형상은 당시 제주민들의 낙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비난했다.⁸⁴⁾

18세기 초 제주관관으로 부임했던 남구명 역시 음사를 지적했다. 무당이 성행하게 된 배경에는 제주인들의 마음속에 깃든 강한 믿음이 있었다. 제주인들은 질병 등 여러 가지 액운을 산방산의 한 노인과 연관지었다. 미륵불이나 한라산 선인 혹 삼방산신 등으로 불리는 이 노인은 흰 두건과 흰 도포를 입고 부채를 흔들었는데 대정현감이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으므로 매년 백성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⁸⁵⁾

남구명이 재직하던 당시에도 제주에 여역이 돌아 5천명이 사망하는 재난이 벌어졌다. 외국의 약물이 부족하자 제주목사는 중앙에 약재를 요청하는 장계를 올렸다.⁸⁶⁾ 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당시 대부분의 제주민들은 약물 보다 무당에 기도하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성안의 노소 수백명이 남구명에게 몰려와 하소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제주의 풍속이 광양당을 필두로 세 고을에 신당을 설치하여 절

82) 이형상, 이상규 외역, 『남환박물지』, 푸른역사, 2009, 119~120쪽.

83) 이형상이 유배객 오시복에게 朝報를 보여준 일이 화근이 되었다.

84) 이형상, 이상규 외역, 『남환박물지』, 120~121쪽.

85) 『우암선생문집』, 303~305쪽

86) 『숙종실록』 숙종40년(1714) 8월 16일(을유)

기마다 음악과 제물을 바쳐 귀신을 즐겁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 태풍이나 고기밥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이 음사를 모두 소각한 후 십년 동안 재앙이 없는 해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대흘리의 한 여자 무당이 신령하여 天神과 소통하였는바 광양신이 노하여 금년에 만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더욱 큰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위협했다고도 했다.

확실히 이형상의 신당 소각은 제주 무당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 무당들은 민인들을 선동하여 제주관아에 몰려가 읍소하도록 만들 정도였다. 당시 남구명은 여자 무당을 효시하여 거리에 내걸고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무당이야말로 제주의 풍속 가운데 가장 해로운 문제거리로 파악한 남구명은 많은 제주사람들이 무당에 속아 재산을 탕진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비판했다.⁸⁷⁾

제주의 음사는 몇몇 목사들이 신당을 불태우고 무당을 죽이는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어김없이 재난이 닥치면 음사는 되살아나고 굿판이 성행했다. 1734년(영조10) 제주에 부임한 목사 정도원 역시 다시 한번 신당을 모조리 불태우고 巫具들을 몰수하여 군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제주의 신당은 사라지지 않았다.⁸⁸⁾

19세기 초 이원조가 제주에 부임했을 때도 무당은 건재했다. 『탐라록』에는 4월 28일 읍내의 제주백성이 母喪을 치른 후 염습을 마치는 데로 무당을 불러 귀신을 쫓아내도록 허락해 달라는 소장이 수록되어 있다. 이원조는 해괴한 풍속에 큰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무식한 백성을 효유할 뿐 차마 죽일 수 없었다고 기록했다.⁸⁹⁾

87) 『우암선생문집』, 316쪽.

88) 『(국역)증보탐라지』, 140쪽.

89) 이원조, 『탐라록』, 101쪽.

5. 맺음말

건국 이래 조선 정부는 주요 약재 산지에 약국이나 의국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약재를 중앙으로 수집하고 이를 다시 지방 약국(혹은 의국)을 통해 재분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곳에는 해민서에서 파견된 심약이 상주하며 진상 약재의 품질을 감독하고, 해당 지방관을 도와 중앙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관리했다.

선초부터 제주도에 심약이 파견되었다. 아울러 의학교수를 두어 지역에서 활동할 의생들을 양성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제주의 의료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주요 진상 약재의 채취나 품질 관리 등을 관리할 자원이었다.

물론 심약이나 지방관처럼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만으로 지방 약국이나 의국의 운영이 유지되기 어려웠다. 의국에서는 계절에 따라 늘 약재를 채취할 뿐 아니라 말리거나 찌고 볶는 등 약재를 진상하기 위해 일정한 제조과정을 거쳐야했다. 이를 심약이 모두 관리할 수 없었기에 향촌 사족들에게 의국 운영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지방 약국(의국)은 기본적으로 직역으로 동원된 藥漢이나 약재의 제조 및 약재 무역 이외에, 이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족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또한 의국에는 관리자 이외에 의술에 밝은 사족들 이른바 儒醫들이 진상 약재의 관리 뿐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한 처방이나 약물 제조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의국에 참여한 사족들은 藥契나 醫局契를 결성하여 지방 의국을 운영했다.

이처럼 의국을 통한 지방 의료 혜택의 확산은 유형원의 『반계수록』에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제시될 정도였다. 의국의 사족들은 기본원금을 유지한 채 약재의 무역과 약물의 제조 및 매매를 통해 이윤을 남겼고, 해당 이익을 지역 내 향교나 서원 혹은 향소의 운영비로 환원하기도 했다. 이른바 ‘사족들의 자발주의’는 국가의 명령이라는 직역과는 무관하게 그러면서도 완전한 사족들의 자치보다는 官·民의 협응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른바 爲己之學의 확산과 더불어 공공선을 표방하는

사족들의 참여가 뒤따라야만 했다. 확실히 제주는 성리학의 더딘 확산과 이로 인한 사족 형성의 지체, 즉 ‘사회적 자본’의 결여로 인해 사족들의 자발주의를 기초로 하는 의국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제주의 주변화’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했고, 이는 의국에서 관리자나 유의로 활동할 만한 사족들의 부재와 맞물렸다. 결국 제주목사의 의지에 따라 의국의 복설과 치폐가 반복되고 말았다.

17세기 말 이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의국을 재개하려 했던 제주목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의국의 자본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제주민을 위한 의료 혜택을 확산시키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갖은 지방관의 체직과 사족 형성의 지체 등으로 제주 의국의 운영이 지속되지 못했던 것이 역사의 현실이었다.

한편, 제주 의국의 지속이 어려웠던 또 다른 배경으로 醫와 그 기원을 같았던 巫의 강력한 위세가 작용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을 해결하고자 대부분의 제주사람들은 귀신에게 빌거나 무당을 섬겨왔다. 제주의 음사와 무당의 위력은 제주의 품관사족을 능가했다. 목사가 아무리 신당을 불태우고 억압해도 이들은 들불처럼 되살아났다.

제주사람들은 약물 대신 귀신을 선호했다. 두창 치료제인 거북껍질[玃瑁]은 儒醫의 처방으로 등장하기 보다 제주 해녀의 신비한 이야기로 둔갑되어 전할 뿐이다. 의술이나 본초 정보가 공개적인 지식의 場으로 나오지 못한 채 은유의 형식으로 문헌 데는 巫와 醫의 투쟁 과정에서 巫의 우위를 증명한다.⁹⁰⁾ 필자는 이러한 현상마저도 제주의 주변화와 그로 인한 제주 의료 환경의 특성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90) 『耽羅志草本(下)』, 10쪽 “毛瑟里有一潛女 未經痘者 往金露浦[금룻개 : 서귀포 강정마을의 한 포구] 見玃瑁在澗水中 憐之放諸海水 悠然而逝如有拜謝之狀 後採鮪於龍頭巖下入水 則見貝闕照耀 琪花爛漫中 有一老嫗迎謝曰 君活我子 感恩無地 遂折一枝花 贈之曰持此可免痘 出水視之 乃珊瑚花也 至老死果驗”

■ 참고문헌

1. 자료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승정원일기』 『성호사설』 『九思堂文集』

2. 단행본

- 고창석, 『제주도고문서연구』, 도서출판 세림, 2001.
- 김상헌, 홍기표 역, 『남사록』, 제주문화원, 2008.
- 김석익, 오문복 외역, 『제주 속의 耽羅』, 보고서, 2011.
- 김석익, 홍기표 외역, 『(역주)탐라기년』, 제주문화원, 2015.
- 김익수, 『제주 역사문화의 길잡이』,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2019.
- 김익수 역, 『(譯註)濟州 古記文集』, 제주문화원, 2007.
-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7.
- 南九明, 김영길 역, 『(國譯)寓庵先生文集』, 제주교육박물관, 2010.
-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自家出版, 1966.
- 守本順一郎, 김수길 역, 『동양정치사상사 연구』, 동녘, 1985.
- 윤시동, 김영길 역, 『(국역)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16.
- 이원조, 김찬흠 외역 『탐라지초본』, 제주교육박물관, 2008.
- 이원진, 김찬흠 외역,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 이형상, 이상규 외역, 『남한박물관지』, 푸른역사, 2009.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편, 『이형상제주목사관련편지모음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2017.
- 조성윤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진성기, 『南國의 傳說』, 일지사, 1968.
- 진태준, 『제주의 민간요법』, 醫苑社, 1977.
- _____, 『건강과 민간요법 : 제주도 민간의학』, 한국고시연구원, 1980.
- 프랑수아 졸리안, 이근세 역, 『문화적 정체성은 없다』, 교유서가, 2020.
- 피터블,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 현용준, 『제주도신화』, 서문당, 1972.
- _____,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민속원, 2002.

3. 논문

- 김일우, 『제주한의약, 그 역사 속으로』, 『제주일보』(2017.5.31.~2019.16).
- 김성수, 『조선시대 儒醫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사학회지』 28-2, 2015.
- 김학수, 『제주지역 유교 지식·문화의 수용 양상과 '제주학풍'-주자학적 예교론과 사림파 학풍의 유입을 중심으로』, 『한국학』 43-3, 2020.
- 김 호, 『權道の 성리학자 金正國, 『警民編』의 역사적 의의』, 『동국사학』 63, 2017.
- _____, 『16~17세기 조선의 지방 醫局 운영 : 경북 영주의 濟民樓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7, 2018.
- _____, 『16세기 지방의 의서 편찬과 환난상휼의 實踐知』, 『조선시대사학보』 89, 2019.

이규대, 『조선후기 藥局楔의 일고찰』, 『史學論叢』 又仁金龍德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 1988.
이석희, 『최근 30년 북미 중국학계의 향촌사회사 연구동향』, 『역사와 현실』 97, 2015.

A Study on the Peripheral Characteristics of Jeju and Medical Culture in the Joseon Dynasty.

Kim Ho*

In this paper, I argued that the formation of local literati was delayed due to the peripheral characteristics of Jeju-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island and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caused by lack of Neo-confucianism, which made it impossible for the local hospital to continue, which had been operated by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literati in Jeju.

Since early in the Joseon Dynasty, the government has not only dispatched doctors to Jeju to manage the medicinal herbs, but also trained medical students. In the 15th century, a local pharmacy[藥局] was established in the Jeju government office, which was maintained until the mid-16th century.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Jeju Governor Yoon-gye worked with two local magistrates to raise funds for the operation of the local hospital[醫局] and open it.

While the local pharmacy was a branch for offering local herbal medicine, the local hospital was responsible for trading medicines and manufacturing and supplying drugs for Jeju residents. As the local hospital that operated until the early 18th century were abolished after mid-18th century. The local literati gradually withdrew their hands when they were mobilized to operate the local hospital on a duty even if they were not when participated voluntarily.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 new governor of Jeju attempted to rebuild the local hospital, but failed to achieve his goals.

* GINUE

The local hospital in Jeju was most active in the late 17th and early 18th centuries, when enthusiastic provincial governors such as Lee Hyeong-sang and Yoon Gye, and doctor Jin Guk-tae were combined together. In particular, after thoroughly removing shamanism, provincial governors Lee Hyeong-sang planned to raise local literati as doctors to take charge of the operation of the local hospital. As soon as Lee Hyeong-sang left Jeju, the shaman's exorcism resumed.

The absence of Neo-confucianism and the slow formation of local literati meant lack of social capital, which became a fundamental factor that made it difficult for the continuation of local hospitals that had been operated on the basis of literati's spontaneity.

Key words: Jeju island, the local hospital, literati, social capital, Lee Hyeong-sang, Jin Guk-tae